



## 향토축제의 꽃 양양현산문화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이끌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향토축제의 꽃 양양현산문화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이끌다

제36회 양양현산문화제가 지방선거 후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으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승화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무대공연은 최소됐지만  
주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면서  
화합과 번영의 향토축제로 의미를 드높였다.

신구(新舊)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양양현산문화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희망과 발전의  
기틀로서 구심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 면 안 내

- 2면 소셜네트워크로 '10만 양양군민' 양성
- 5면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관광활성화 견인 기대
- 8면 무산복지재단, 시설 안전점검 · 방화대책 마련
- 11면 군정종합

- 3면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6면 레저 · 스포츠 활용 마케팅 1석2조
- 9면 양양 · 인구전통시장 9일부터 공연 시작
- 12면 군정종합

- 4면 양양해변 7월11일 개장 45일간 운영
- 7면 제19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
- 10면 청소년 기자단 지역알림이 역할 특독

# 소셜네트워크로 '10만 양양군민' 양성

### 우리군 가상 사이버도시 조성...소지자 할인혜택 부여

우리군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아 소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0만 양양군민'이라는 가상 사이버 도시 조성에 나선다.

군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홍보전략으로 소셜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의 의미를 넘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최초로 10만명의 가상 사이버 도시를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기존에 운영 중인 페이스북과 블로그, 대학생 문할 등 모든 SNS활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군이 운영 중인 페이스북에는 1만6,1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축제와 지역알리기, 귀농귀촌 등 블로그에도 1일 3,000여명이상이 방문함으로써 지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의 고정 팬이 지난해 초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군은 홍보사이트와 군의 주요 특산물에 대한 콘텐츠를 별도 구축해 운



영한 결과, 양양몰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량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과 SNS 및 특정한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고 있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소셜 양양군민'을 모집해 군민증(YY SOCIAL CITY ID CARD)을 발급하고, 군민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하는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과 각종 축제의 참가비 등을 할인(10~20%)하는 한편, 음식과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자율참여를 통해 유도하며, 피서철에는 해변에 소셜 양양군민 하계휴양소 운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처음 열어 효과가 높았던 대학생 문할과 이를 통한 대학축제와 SNS를 통한 지역알리기 연계활동도 올해는 2개 마을 이상(20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양성된 소셜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양양을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개념을 바꿔 도시인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사이버 양양군민을 양성하고 늘려나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캐릭터 상품 홍보판매 시작

### 티셔츠 등 18종 다양...지역이미지 제고 기대

우리군이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캐릭터를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 지역홍보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기존의 캐릭터인 '해키'를 이용해 개발한 상품을 이번 현산문화제에서 일반에 공개한 뒤 홍보 및 판매에 들어갔다. 종류는 목 쿠션을 비롯해 모두 18종에 이른다.

이번에 시판에 들어간 캐릭터 상품은 지난 2009년 개발한 '해키'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다,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국산 캐릭터 상품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1억3,5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캐릭터 상품은 실용품으로 여행 편의용품(부채와 목 쿠션), 기념품(열쇠고리.스티커.금도금.핸드폰 전자파차단기)과 생활용품(반팔 티셔츠.타올.볼펜.노트.수첩.양말.연필.무릎담요.쇼핑백), 소장품(손수건.봉제인형.그림동화) 등으로, 최고가 상품은 티셔츠로 개당 2만7,000원이며, 최저가 상품은 부채와 연필, 스티커 등으로 600원이다.

군은 제작 완료된 캐릭터 상품을 지난 19일 열린 제36회 양양현산문화제 때 부스를 마련해 홍보 및 판매행사를 통해 시판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는 선사박물관, 관광안내소 등에 상설매장을 설치하고 관내 대형 관광사업체에도 판매코너를 개설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군의 캐릭터 상품개발은 지난해 4월 캐릭터 개발 및 제작 전문업체인 (주)매쓰씨엔지(2009년 군 캐릭터 '해키' 및 심벌마크 제작업체)에 의뢰해 설문조사와 시장조사를 거쳐 상품성이 있는 18종 7만9,200개로 제작 완료한 것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사무관 3명 명예퇴임

### 윤규 · 이임순 · 최명섭 씨...오는 16일자

윤규 양양읍장과 이임순 보건소장, 최명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등 1955년생 사무관 3명이 지난 16일자로 나란히 명예 퇴임했다.

윤규 읍장은 지난 1980년 공직에 입문해 세정과 경리담당을 거쳐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과 양양읍장을 지냈다. 지방세정 발전 유공으로 2008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다.

이임순 보건소장은 지난 1982년 간호직으로 공직에 들어온 뒤 진료, 건강관리, 방문보건, 드림스타트 등을 담당한 후 지난 2012년 사무관으로 승진, 보건소장을 맡아 주민건강증진에 헌신해왔다. 2008년 국가암관리사업 증진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윤규



이임순



최명섭

표창을 받았다.

최명섭 과장은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해 강현면과 산업과, 농림경제과, 농정산림과, 경제도시과 등을 거친 후 2013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농업정책과장을 맡아 지역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직거래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했다. 식량증산과 농촌일손돕기 유공으로 농림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6·4지방선거 당선증 교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해립)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6.4지방선거 김진하 양양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장석삼 도의원 당선인, 오한석·진종호·고제철·최홍규·이기용·

김정중·이영자 기초의원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김진하 양양군수 당선인은 대표 인사말에서 "지역회합과 발전을 위해 무한의 책임을 지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 1. 오색령의 지명에 관한 기술
  - 2. 한계령으로 지명 변천 기술
  - 3. 오색령·한계령 고증 비교
- III.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과 복원절차
  -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 2. 현행법상 지명 복원절차
- IV. 맺는 말

이번호 부터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우리고장 문화유산 되짚어보기 논문을 실습니다.

### 2. 한계령으로 地名 變更記錄

#### 1) 日帝强占期 寒溪嶺으로 歪曲

한계령(寒溪嶺)은 일제(日帝)가 멋대로 땅이름을 바꿔놓은 왜곡의 표본사례이다. 1914년 이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전국의 지명과 지사항(地誌事項)중 양양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양군 서면 오색령을 인제군 북면 지역에 표기하고, 한계령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변경 표기함으로써 우리 전통고유 지명인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뒤바꿔 놓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는 신종원(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의 강원도 땅이름의 참모습 -《朝鮮地誌資料》 강원도편 -(경인문화사) 420쪽 인제지도 북면 동쪽으로 오색령이 표기되어있다. 양양지도에는 오색령이 없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형제현(兄弟峴), 연수파령(連水坡嶺), 조침령(阻沉嶺), 구룡령(九龍嶺)으로 표기되어있다. 『朝鮮地誌資料』 강원도편 421쪽에 수록된 지명은 인제군 북면 강천계간명(江川溪澗名)에 오색천(諺文:오식이←)이 한계리 자양곡(紫陽谷)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2>참조. 423쪽의 인제군 북면 영치현명(嶺峙峴名)에 오색령(諺文:오식이영)이 한계동(寒溪洞) 자양동(紫陽洞)에 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840쪽의 양양군 서면 영치현명(嶺峙峴名)에 한계령(諺文:한계영)으로 적고,

비고란에 서면 오색리로 기록하였다<표 4>참조.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의 각 쪽별의 세부 자료는 중.하략(中下略)하였다.

#### 2) 일제강점기 한계령으로 變更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단독표기 된 것은 1915년 발행된 조선총독부지도가 최초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한 한국근대지리지(韓國近代地誌資料)의 인제군세 일반(麟蹄郡勢一斑) 지도[(地圖) 1/200,000]에는 설악산과 그 아래 영로는 한계령(寒溪嶺)·단목령(檀木嶺)·조침령(鳥砮嶺)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오색령이 지도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한계령으로 표기한 시점은 이때부터 임을 알 수 있다.

#### 3) 일제강점기 오색령 명칭 계속사용

조선총독부는 조선지리지(1914년 이전). 조선총독부발행지도(1915년). 한국근대지리지(1930년)에 한계령으로 변경표기 한 것과는 관계없이, 총독부관보, 개벽(월간종합지), 동아일보 신문기사, 강원도지 등에 오색령 명칭을 통상적(通常的)으로 사용해 왔다. 그 실례를 보면 “조선총독부관보(1913년 1월 15일)에 강원도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하다에서 양양~인제 간(약수리 오색령 어두리 경유)……” “동아일보기사(1932년 3월 15일)인양선도로문제로 동민, 당국에 진정 오색령으로 고쳐달라고……” “개벽 제42호(1923년 12월 1일)기사제목 조선의 처녀지인 관동지역 란에……(古代로 五色嶺을 통하야 嶺西의 교통이 頻頻한 所以)……” “개벽 제42호(1923년 12월 1일)관동의 흑산국 양양군(關東의 黑山國 襄陽郡) 란에 시사문제는 오색령도로문제로 송계문제(松稷問題)가 최중요하나 오색령문제는……” “개벽 제62호(1925년 8월 11일) 만호(萬戶)미만인 양양주민 부담으로 20만원 거금을 관출(辦出)하야 오색령을 2등 도로로 수축(修築)하야……” “강원도지(1940년)에 오색령은 부서쪽70리에 있으며 이를 경유하여 서울로 간

다.”라고 적었다. 등이다.

#### 4) 정부수립이후 한계령으로 命名한 誤解

정부수립이후(政府樹立以後) 공식적(公式的)으로 한계령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61년 4월부터이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소장(所藏)된 한계령(寒溪嶺)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제군은 1959년 3월에 지명조사를 실시하여, 동년 3월 27일 지명제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동년 4월 1일 지명승인 신청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계령 지명의 유래는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寒溪嶺)이라고 하나 오색이영 이라고도 함”이라고 보고 하였다. 국무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사용한다.”라고 국무원고시 제16호(1961년 4월 22일)로 전국의 지명을 고시 할 때 한계령(寒溪嶺)도 함께 표기되었다.

설악산 횡단도로 개축공사(改築工事)는 육군 공병부대가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1차 공사는 육군 제3군단에 의해 1963년에 완공하였고, 2차 공사는 육군 제5289부대에서 1971년에 각각 완공하였다. 군부대에서 공사를 완공한 이후 당시 일반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던 오색령을 갑자기 한계령이라 부르게 되니, 일반사회에서는 군부대와 관련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일제가 임의로 지도상에 오색령(五色嶺)을 한계령(寒溪嶺)이라 바꿔 표기했던 것을 바르게 고치지 않고 비판 없이 그대로 표기한데서 온 오해(誤解)이다.

#### 3. 오색령·한계령 考證 比較

앞에서 오색령에 관하여 고문헌(古文獻).고지지(古地誌).고지도(古地圖) 등 역사적으로 고증(考證)된 기록들과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및 정부수립(政府樹立)이후 오색령(五色嶺)이 한계령(寒溪嶺)으로 지명(地名)이 변경된 기록을 각각 살펴보았다.

<계속>



# 양양 해변 7월11일 개장 45일간 운영

## 피서객 4백만명 유치 목표...‘안전’ 최우선



우리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해 7월11일부터 8월24일까지 45일간 여름해변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마을 대표자와 군부대, 경찰, 해경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014년 양양 해변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개장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양양해변은 낙산을 비롯해 모두 19개소가 운영되며 지난해 개장했던 중광정리 해변은 열지 않기로 해 지난해보다 1개소가 줄었다. 해변 운영시간은 시범해변인 낙산 해변과 일반해변인 설악·하조대·오산·남애3리·지경해변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4개소의 마을 해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군은 해변 안전을 위해 총 93명의 인명구조원과 해경 구조인력 25명, 구명용 보트와 제트스키 17대를 배

치하고 47개소의 감시탑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2억5,500만 원을 투입해 샤워장과 화장실, 식수대 등 20여개 시설을 정비하고, 조개줍기, 오징어 맨손잡기, 바다 속 보물찾기, 해변영화제, 음악회 등 해변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를 개최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한 400만명 이상의 피서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는 6월부터 수도권 지하철 역사와 주요 전광판 등에 대대적인 광고와 현장 홍보행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관내 해변은 63만1,000㎡의 면적에 1일 24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지난해 전체 피서객은 348만8,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14% 증가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계획 마련

우리군, 안전관리 통합운영 분야별 대책 수립

우리군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각종 재난 재해 대비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014년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23일 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한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공항공사, 양수발전소, 가스, 전기 등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안전관리 업무계획도 포함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군수) 설치와 실무반 편성, 근무

체제, 운영 및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등 민관군 합동 운영사항과 대응업무별 책임기관 담당자 및 사고별 수습담당자를 명시했다.

또 재난 위험지구를 1~3등급으로 분류해 수시 관리하고, 옹벽, 축대 등 방재시설물과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사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강력한 행정행위를 병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와 설해, 가뭄, 지진, 해일, 해상재난, 적조, 산불, 건축물 및 시설물 재난, 독극물 환경오염사고, 황사, 폭발형 대형 화재 등 재난 유형별 예방 및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양양연어사업소, NPAFC 참가

국제적 위상강화 기대...한국인 첫 재정행정위원장 선임

양양연어사업소가 연어의 모천 기원국 지위 확보와 폭넓은 연어연구 활동을 위해 국제연어학회인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해양수산부와 양양연어사업소는 지난달 12~16일 미국 포틀랜드에서 열린 제22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정례회의에 참가해 우리나라 연어연구의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연어의 회귀율 산정과 연령사정, 회귀경로 규명 등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연어 어획량 및 방류량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박정섭 수산연구사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재정행정위원회 의장에 선임돼 오는 2016년까지 재정과 행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양양연어의 연구 활성화와 위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양양연어사업소는 오는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연어 기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발한 연어연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내년 5월 일본 고베에서 열릴 예정인 제23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에 참가해 ‘기후변화에 따른 태평양 연어와 무지개 송어의 생산’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홍관의 양양연어사업소장은 “우리나라가 회원국들과 공동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연어 모천 기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치를 확고히 함에 따라 앞으로 연어증강사업과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는 연어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993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2003년 정식 가입한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다.



##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 마-45 老夫婦의 情

영감아! 땡감아!  
죽지는 마라.  
봄 보리 개떡  
꿀 발라 줄께.

어느 노부부의 각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조님, 부부가 되었어도 내놓고 “사랑해요.” “행복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깊은 그 속마음에는 不變의情! 愛情, 友情, 同情의 調和로움에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 왔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떠합니까? 심심치않게 「황혼이혼」을 듣노라면 참 씁쓸함을 안게 됩니다. 비록 각방을 쓰거나 혹은 이불속이 아니더라도 하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골달콩 百年偕老를 꿈꾸며 밝음, 맑음이 들고나는 長壽의 장면연출을 기원해 봅니다.

- 개떡 : 밀가루나 보릿가루 또는 노깨, 메밀 속 나깨 등을 반죽하여 둥글넓적한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반대기를 지어 찢 떡
- 노깨 : 체로 쳐서 밀가루를 버리고 남은 찌꺼기
- 나깨 :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 내고 남은 속 곱질

#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관광활성화 견인 기대

### 만족도 89% 높아...요금인하 및 편의시설 추가 주문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해양심층수 사업에 나선 (주)동해해양심층수가 최근 취수관 절취사건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기존 생산품의 전량 폐기처분을 마치고 이달 안으로 영업 재개에 들어간다.

동해해양심층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설립된 (주)워터비스가 2012년 (주)워터비스 생활건강으로 경매된 뒤 지난 2013년 6월 재경매로 소유권이 (주)동해해양심층수로 소유권이 완전 이전돼 운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해양심층수 취수관로 보수를 맡은 업체가 지난 2013년 4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이전 회사인 (주)워터비스 생활건강과 계약을 체결하고는 지난해 10월경 취수관을 절단했다고 밝혔다.

(주)동해해양심층수는 지난해 6월 26일 소유권을 완전

이전한 가운데 지역업체와 관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7월 28일 취수관로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전 취수관로 보수업체는 (주)워터비스 생활건강과의 미지급 계약금 문제로 취수관을 절단, 현재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동해해양심층수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해양심층수 생산 판매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취수관로가 절단됐다는 특정시점인 지난해 10월부터 생산한 모든 제품을 오는 20일까지 25만병 전량 폐기처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의뢰한 수질검사도 적합 판정을 받는데 이어 10월과 지난 1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기준에도 적합 판



정을 받았으나, 고객들의 우려를 고려해 전량 폐기처분에 나섰다.

이는 이번 취수관로 절취사건으로 인해 동해해양심층수를 즐겨 먹던 고객들에게 선의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지난 3월 동해지방

해양항만청으로부터 받은 취수중단 명령 해지를 요구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재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동해해양심층수 관계자는 “생산일자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생산한 모든 제품을 폐기처분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고품질의 해양심층수를 생산해낸 기술력으로 더 좋은 제품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농기계 임대사업 30% 증가 도움

### 총 355회 이용...내년 확대계획 추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해 적기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현재까지 95% 이상의 농가에서 모내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트랙터와 이앙기(승용, 보행) 등 모내기 관련 임대농기계는 총 355회(587ha)에 걸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농업인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는 봄철 모내기와 가을 추수철에 대비해 2억6천만원을 투입, 이앙기, 콤바인, 탈곡기 등 10대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해 현재 42종 16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위낙 수요가 늘어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 예산을 늘려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한편 벼와 밭작물은 물론 과수농가와 관련된 다양한 신



규기종을 지속적으로 구입해 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콤바인과 트랙터 등 장비에 대한 운전미숙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 농기계에 대한 교육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고령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관리기 등 장비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이밖에도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통해

120여개 마을에 대해 소형농기계와 경운기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리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부품은 군비로 무상지원하고, 사고에 취약한 경운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매년 100여대에 야광표시등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담당 670-2368

## 도시민 유치활동 강화

### 소득아이템 프로그램 제공...2020년까지 3천명 목표

우리군이 계속되는 인구감소를 막고 농촌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민 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유치한 284명의 귀농귀촌인을 2020년까지 1,000가구 3천명을 목표로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 관심이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 1,2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귀농귀촌 인큐베이터, 귀농귀촌 체험학교, 직접적인 현장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표고,허브,장류,과수,체험마을,펜션 등 다양한 소득아이템도 개발해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농업인 멘토와의 만남 정착모델 제시를 통한 종합 정보제공, 모범사례 교육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규 테마마을을 조성해 전원주택, 월빙센터, 주말농장 등을 갖춘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 레저·스포츠 활용 마케팅 1석2조

### 사이클·요트 등 특화분야 강화

우리군이 사이클과 요트의 특화된 레저·스포츠시설을 활용한 활발한 마케팅으로 지역홍보와 경기부양 등 1석2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14개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해 5,400여명의 선수단을 유치한데 이어 수산항 요트마리나에서 개최되는 요트학교와 체험 프로그램에는 모두 13만여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올해는 9억원을 투입해 20여개 대회를 개최, 선수단 6,000여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 단위 대회의 전담은 물론 국가대표급 실업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이클 경기장에 매년 3개 이상의 전국단위 대회를 상설 개최하기로 하고 체



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도와 로드, 자전거경기장을 연결하는 40~60km구간의 최적화된 MTB코스를 개발,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매년 5~6월중 정기적인 동호인 대회도 연다는 방침이

다.

또 수산항 요트마리나에서는 해양경찰정장배, 한국레이저요트협회장배 등 전국단위 요트대회를 매년 2회 이상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대통령기대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동해안 최고의 서핑 입지여건을 갖춘 기사문과 죽도해변은 서핑 클럽하우스를 신설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레저기반을 차곡차곡 구축해 나가고 있는 동산항을 수산항과 함께 해양종합레포츠센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걷기 열풍과 레저에 관심이 높아져 지역의 차별화된 생태와 자연경관을 접목한 '38선 따라 38km걷기', '동해안 따라 걷기', '옛 구룡령길 걷기' 행사와 남대천 수변 트레킹 및 연어길 트레킹 이벤트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 이벤트를 관광상품으로 접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특성을 잘 살린 이벤트를 관광상품으로 연계시키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 '38선 산소 길' 명품 길 부상

### 도보순례 300명 발길...녹색관광 기반 마련

우리군이 지난 2010년 조성한 38선 산소길이 최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특색 있는 명품 길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역의 부존자원인 산림과 경관이 수려한 숲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억원을 투입해 38선 산소 길을 조성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38선 산소길 구간에는 천주교 신도들의 순례길인 디모테오 순례길을 비롯해 정족산, 벽실골 등 테마가 있는 구간이 함께 포함돼 최근 도보순례자와 등산객, MTB동호인들까지 주말이면 300여명 이상 방문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디모테오 순례길은 6.25전쟁으로 인해 공산치하에 들어간 양양에 거주하던 양양성당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가 신앙과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하하는 동포들의 돕기 위해 개척한 18km의 피날 길로 산소길 조성 후에는 이광재 신부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도보 순례객들의 답사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서면 서림리와 현북면 어성전리를 연결하는 24km구간(제3구간)은 벽실계곡(벽실골)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함께하며 어성전을 이어주던 옛길로, 38선 이정표와 유사한 기념표지석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지금은 등산객과 자전거 동호인들의 명품코스로 활



용되고 있다.

38선 산소 길은 1945년 포츠담 선언 이후 양양군이 남북으로 분할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현북면 잔교리~서면 서림리를 연결하는 38km구간을 복원해 의미를 되새기고, 녹색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성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1일, 국군 제3사단 23연대가 현북면 잔교리 38선을 넘어 최초로 북진을 시작한 곳이며, 이날을 기념해 국군의 날로 제정된 의미도 담고 있어 현재 38선 휴게소를 비롯해 현북면 대치리, 명지리, 서면 영덕리 등에 38선 관련 시설물이 설치돼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달 1,7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목교와 안내간판 설치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38선 돌과일인 10월1일 국군의 날을 전후해 '범국민 38선 따라 38km걷기' 행사를 개최하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염원을 기원하고 있다. ▶문의 미래전략과 전략사업담당 670-2123

##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추진

### 관동대 양양캠퍼스 등 포함...내년 말까지

우리군이 실질적인 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비에 나선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수립돼 활용 중이던 양양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 12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에는 전 면적에 대해 환경성과 교통성, 경관성, 사전재해영향성을 포함해 타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보전산지 등) 변경사항과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불합리한 관리계획 결정사항,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용도변경 등을 검토,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관동대 양양캠퍼스 및 버스터미널 등 양양군의 주요 전략계획시설과 여건 변화에 따른 군도 승격노선 등 주요시설을 반영하고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요를 예측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특성에 따라 우려되는 폭우, 해수면 상승, 폭설, 강풍, 폭염 등 재해취

약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 재난에 따른 대응역량을 높여나가는 한편,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인 저탄소 녹색도시계획도 신규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목표로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를 줄이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늘리도록 변경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은 목표연도 변경 없이 내용만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군의 기본계획은 전체 면적(62만9,014km<sup>2</sup>)에 대해 '관광·휴양도시 양양'을 목표로 계획인구 5만명을 설정해 시가화 용지 5,058km<sup>2</sup>, 시가화예정용지 1만3,967km<sup>2</sup>, 보전용지 60만9,713km<sup>2</sup> 등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해 운용 중이다.

군은 이달 중으로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기존계획 재검토 및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후 관련기관 협의와 강원도 승인을 거쳐 내년 12월 고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양동창(학술) · 조광복(문화예술) · 김경원(지역개발) · 함흥형(사회봉사)

# 제19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

제19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로 양동창(학술) · 조광복(문화예술) · 김경원(지역개발) · 함흥형(사회봉사) 씨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오전 9시40분 제36회 양양현 산문화제 개막식장에서 열리며 상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양동창(학술)=양양문화원장으로 향토문화와 양양의 역사를 정립하는데 헌신해 왔다. 또 다양한 문화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양의 전통을 현대문화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양양의 역사성이 생활 전반에 스며들도록 노력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조광복(문화예술)=소중한 양양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사장돼 가던 상복골농요의 보존 계승에 힘쓰며 잊혀져가는 전통문화 전승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강원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 끌어냈다. 상복골농요의 원형복원에 구슬땀을 흘린 소리꾼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경원(지역개발)=강현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치비행장 주변 도로 개선에 기여했으며,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건의, 현재 정비계획 및 설계가 시행 중이다. 또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도 건의해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지역의 애로사항 해결



양동창



조광복



김경원



함흥형

과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함흥형(사회봉사)=손양사랑회 창립회원으로 손양면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어린이날 행사 지원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나서 고마움을 사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한 뒤 각계각층의 참여 확대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 “항공직업인 진로교육 호평”

강현중학교 주선, 아시아나 교육기부팀 강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대표브랜드인 강현중학교(교장이종선)가 주선한 항공직업인 초청 진로직업교육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현중학교는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직업인을 초청해 설악여중체육관에서 동시에 진로직업교육 강좌를 열어 학생들의 미래직업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날 진로직업교육에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현역 부기장인 김대현 팀장

과 박소희 선임승무원 등 교육기부팀이 강사로 나와 항공직업인의 생활을 생생하게 전했다.

특히 항공직업인이 되기 위한 미래 설계에서부터 준비과정, 자질과 자세 및 직업관 등 항공직업인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줬다.

이날 양양지역은 강현중학교를 비롯해 양양고, 양양여고, 양양중, 양양여중 등 4개교 학생 및 교사 80명과 속초지역은 설악여중을 포함해 속초중,



속초여중, 속초여고 학생 및 교사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종선 강현중학교 교장은 “이번 초청 교육처럼 앞으로 다양한 진로교육

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알차고 바람직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강화

맞춤형 주민 교양강좌 개발...마을별 순회교육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를 주민들의 교양강좌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군은 우선 매월 열고 있는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의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SMS문자서비스, SNS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초특급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주말을 활용해 무지컬과 마술, 연극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강좌도 개설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향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학습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회관을 활용한 평생학습관을 조성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생애주기 학습과 교양 · 스포츠 · 취미, 직업능

력 향상, 사회통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지역의 원거리 거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취미, 교양강좌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5개 마을을 통합해 마을회관에서 건강, 취미, 교양, 문화공연 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와 도우미를 통한 마을별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여건을 마련하고 e-학습센터 구축과 전담인력양성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안전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 전산사무실무과정 22명 수료

여성새일센터, 3명 조기취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0일 올해 첫 직업교육훈련인 전산사무실무과정(ITQ자격 취득)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지난 4월 7일 시작해 6월 10

일까지 40일(8주)동안 1일 4시간, 총 160시간 전산교육을 실시, 조기 취업생 3명을 포함해 22명이 수료했다.

## 무산복지재단, 시설 안전점검·방화대책 마련

낙산요양원,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시스템 갖춰



최근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산복지재단(이사장 정념스님)이 각 시설들에 대한 면밀한 안전점검과 함께 손쉬운 방화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산복지재단은 '우리시설은 스스로 지켜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달 26~30일까지 낙산요양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무산지역아동센터 등 각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시설별로 맞춤형 소방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102명이 거주하고 있는 낙산요양원은 층별로 방화수와 방화사, 소화기를 갖춰 화재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응급대책을 마련했다.

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0분 이내로 구급차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연 2회 소방교육을 비롯해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산복지재단은 이번 일제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정념스님이 직접 각 시설들을 방문해 안전시스템을 점검한 뒤 방화대책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과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무산지역아동센터의 안전대책도 마련하는 등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 참여와 나눔의 릴레이 봉사 시작

자원봉사센터, 25개 단체 130명 참여

우리지역의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2014 자원봉사 릴레이를 실시했다.

우리군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참여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문화복지회관에서 관내 25개 자원봉사단체 130여명이 참여하는 2014 양양군 자원봉사 릴레이활동 출발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내 각 시군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자원봉사 기본정신을 되새겨 자발성과 무보수성 및 공익성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지도층에게는 참여와 나눔의 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했다.

강원도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릴레이기를 인수한 양양군자원봉사센터는 양양자원봉사대, 양양적십자 의상봉사회, 한국부인회, 강현여성의용소방대, 양양수지침봉사회, 양양여성의용소방대, 양선희, 노블리스 오블리주 참가자 등 25개 단체 130명의 자원봉사자가 오는 5일까지 9일간 1일 4시간 이상 장애인 가구재가봉사, 독거노인 목욕봉사, 요양원 입소 어르신 네일아트봉사, 무료급식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 11명의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원봉사회원들도 동참해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에게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 양양출신 이종우 강릉지원장 특강

지난 18일 양양고서 '민주주의와 법치'

우리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18일 양양출신의 이종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을 초청해 양양고에서 1학년 재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와 법치'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이종우 지원장은 고향 후배들의 눈높이에 맞춘 격의 없는 강의

를 해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손양면 상왕도리가 고향인 이 지원장은 손양초교(41회)와 양양중학교를 마치고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강릉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올해도 암소 상환 릴레이

농업기술센터, 박병훈 씨에 전달



올해도 우리군농업기술센터의 한우상환 릴레이가 이어졌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모범영농 우수 4-H회원인 양양읍 임천리 박병훈 회원에게 하용성 회원이 상환한 암송아지 1마리를 전달했다.

한우상환 릴레이는 1983년 양양JC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서울 강서JC가 당시 5개월 된 어린 암소 5두를 양양관내 4-H 회원 5농가에 지

원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올해까지 어린 암소 상환사업으로 관내 총 24명의 회원에게 24두의 어린 암소가 전달됐다.

이번에 한우를 전달 받은 박병훈 회원은 지난 2012년 4-H회원으로 가입해 양양군 4-H연합회 총무를 역임하고, 현재 강원도 4-H연합회 기획부장직을 맡고 있다.

## 양양 · 인구전통시장 9일부터 공연 시작

10월까지 총 29회...노래 ·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



양양군이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했던 전통시장 공연을 9일부터 시작했다.

군은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양양읍과 현남면의 전통시장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시장은 4·9일, 인구시장은 5·10일 고객과 상인이 하나 되는 문화·예술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타악·현악·탈춤·국악, 연극, 7080통기타가수, 트롯가수, 폼바, 지역예술인 등 다채롭게 진행되며, 가족노래자랑도 마련된다.

양양시장공연은 올해 1억3,600

만원을 투입해 폭염기간인 7월 24~8월14일을 제외하고 6월9일부터 10월말까지 총 26회 진행되고, 인구전통시장은 8~10월 월 1회씩 총 3회 마련된다.

군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전통시장의 아케이트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고려당 입구와 백세약국에서 어시장까지의 진입로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7억원을 투입해 남문4리 마을회관~남대천제방과 강원축산~남대천제방 구간의 도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670-2728

## 산양산삼동철감·낙산배 명품화

비교우위작목 경쟁력 강화 추진

우리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을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여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지역특화 작목의 재배면적 확대와 품종특성 연구를 통한 토착화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비교우위의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능성·건강식품을 개발, 산업화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육성에 들어간 설악산 산양산삼은 2015년까지 50헥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우수종자 보급과 산양산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상품화에 나서고 있으며, 해풍 동철감도 2015년까지 500헥타를 조성해 6개소인 꽃감가공시설을 15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품화가 진행 중인

낙산 배는 관수, 방제기, 승용에 초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이어 현재 75농가 35헥타의 재배면적을 2015년 50헥타로 확대 조성하고 공공과원을 확보해 현재 140그루의 낙산배 1그루 갖기 체험을 1,000그루까지 확대, 낙산배 1그루 갖기 및 배꽃축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연계해 명품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설악산 그린푸드(산채)를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푸드 아카데미 지원, 그린푸드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조성 사업 등에 7억2,500만원을 투입해 웰빙산업화도 추진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담당 670-2369



## 2014학년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평생학습시대를 선도하는 열린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4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 모집학과(22개학과)

-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가정학과(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상학 전공),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
-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 ○ 접수기간

- 인터넷 접수 : 2014.6.9.(월) ~ 2014.7.16.(수)
- 방문 접수 : 2014.7.10.(목) ~ 2014.7.16.(수)

### ○ 전형원칙 : 출신 학교 성적 순으로 선발

### ○ 합격자 발표 : 2014.8.6(수)

### ○ 대표전화 : 1577-2853(입학오심)

☞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를 참고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대학

200-954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51(효자동) ☎ (033) 240-6613

(http://www.knou.ac.kr)

## 강력단절여성 취업 인턴제 시행

여성새일센터, 6개월 직장체험 실시

우리군은 장기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새일 여성인턴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장기취업을 전제로 직장체험(인턴 6개월)기간을 통해 직장 적응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미취업 상태인 구직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직업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이수자, 취약계층 30%이상 의무연계로 20명을 모집한다.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체로 직업

의식 고취 강화를 위해 집단상담 이수자 및 여성친화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후 새일여성인턴을 연계해 실시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모집인원 완료시까지 여성인턴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다.

여성새일센터 알선을 받아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며 인턴 당사자에게는 6개월 근무 후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채용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문의 여성새일센터 670-2357

청소년 기자단

# 지역알림이 역할 톡톡

고교생 18명 구성...글쓰기 배우며 다양한 소식도 전해



우리군청소년수련관의 기자동아리가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지역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군청소년수련관 기자동아리는 박지원(양양여고 2학년) 편집장을 중심으로 팀원 18명이 학교생활은 물론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하고 있다.

기자동아리는 양양고와 양양여고 1·2학년생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글쓰기 실력을 배양하고 이를 매개로 지역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편집장은 “처음에는 기자라는 직업이 생소

하고 어려웠지만,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차근차근 실력을 쌓다보니 재미도 있고 팀원들도 호흡을 잘 맞춰 즐겁다”며 “우리고장의 소식을 정리해 알려준다는 자부심도 크다”고 말했다.

기자동아리 회원들은 아직은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까지 찍어 어엿한 기사로 완성해내고 있다.

또 이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어떻게 취재하고 글쓰기를 할지 등 다양한 테마로 자체 토론도 갖고 있어 논술실력 배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영민 경제부 팀장은

“지역경제에 대해 취재하고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글을 완성했을 때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권태영 지도사는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다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기자가 돼 지역소식을 알리면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기자동아리가 더 알차게 운영돼 지역의 과수꾼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청소년수련관 670-2927

## 제5회 양수발전소 문예한마당 성료

양양여중 이지혜 대상...10개교 120명 참가

양양양수발전소(소장 이방훈)가 마련한 제5회 청소년 문예한마당이 지역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3일 발전소 홍보관에서 개최된 이번 청소년 문예한마당은 양양·인제관내 10여개 학교에서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한껏 뽐냈다.

이날 문예한마당에서는 원자력을 주제로 글을 지은 양양여중 3학년 이지혜 학생이 문예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기린고 2학년 김연, 양양여중 3학년 정예진, 기린초고 6학년 단경호, 오색초고 6학년 정래은 학생이 각각 금상을 받아 해외문화탐방 기회를 잡았다.

올해로 5회째 열린 이번 청소년 문예한마당은 갈수록 지역청소년들의 참가열기가 뜨거웠으며, 학생들의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등 내실을 더하며 등용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이방훈 소장은 “문예한

마당이 양양과 인제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성 계발과 인성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예한마당을 열어 청소년들의 문학적 소질 발굴에 적극 동참해 호응을 얻고 있다.

### 2014년도 제2회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시일자 : 2014년 8월 6일(수요일) 09:00 ~ 16:30(중입 11:40, 고입 14:50)
- 고시장소 : 2014년 7월 28일(월요일)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알림마당>인사/시험>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탑재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 6. 23.(월) - 6. 27.(금) 【5일간】
  - 방문 및 우편접수 (단, 중입은 온라인 및 방문)
- 교부·접수장소
  - 교부 : 17개 교육지원청
  - 접수: 17개 교육지원청
    - 교부·접수시간 : 09:00-18:00
    - 우편접수는 춘천,원주,강릉3개교육지원청만 해당 (단, 중입은 우편접수 미 실시)
- 합격자 발표 : 2014. 8. 25(월)
  - 공고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we.go.kr) 탑재

문의 : 강원도교육청 033)258-5624

### KT속초·양양지점-양양 해당마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등 상생교류 약속



KT속초·양양지점(지점장 전용표)과 양양 해당마을(대표 이상욱)이 지난 12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상생교류를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전용표 KT속초·양양지점장과 노현화 NH농협 양양군지부장, 박철수 서광농협 조합장,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민들과 KT속초·양양지점 직원들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농촌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 뒤 표고목 이동작업, 마을정화 활동 등 농촌사랑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 양양우체국 과수농가 일손 돕기



양양우체국(국장 임근순) 집배365봉사단은 최근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양지역 과수농가를 찾아 낙산 배 봉지 씌우기 등 봉사활동을 펼쳐 고마움을 샀다.

국방부 고시 제2014-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4-1번지 / 4,347㎡	'14. 5. 20. ~ '14. 12. 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고시 제2014-124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0-1, 175-1번지 / 2,700㎡	'14. 5. 20. ~ '14. 12. 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고시 제2014-125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117번지 / 1,850㎡	'14. 5. 20. ~ '14. 12. 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고시 제2014-126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을 향호리 80-23번지 / 4,284㎡	'14. 5. 20. ~ '14. 12. 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고시 제2014-127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신축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5-1번지 / 4,900㎡	'14. 5. 20. ~ '14. 12. 31.

-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기 바랍니다.

양양읍 공고 제 2012-3-2호

###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변경)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일

양양읍장

- 1. 사업명 : 『김동술』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변경
- 2. 도로위치 : 당초 : 양양읍 정손리 산75번지 ⇒ 변경 : 양양읍 정손리 77-9번지
- 3. 도로길이 : 19.0m
- 4. 도로폭 : 4.0m
- 5. 도로면적 : 67.0㎡
-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67.0	67.0		
양양읍 정손리	77-9	임야	67.0	67.0	김동술	도로지정동의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예정
  -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 적용예정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1577-1000)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마인가요?!

- 속초기상대장 서광신 -

어느덧 2014년도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겨울철 하면 '삼한사온'이 떠오르듯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장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장마의 어원에 따르면 '오랜'의 한자어인 '장(長)'과 비를 뜻하는 '마(雨)'의 합성어로 오래 지속되는 비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상학적으로 볼 때 장마는 봄철 발달하는 차고 습한 성질을 가진 오호츠크해고기압(mP)과 여름철에 발달하는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고기압(mT)의 사이에서 두 기단의 온도와 습도 차에 의해 장마전선이 형성되고, 이 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한다.

우리 지역의 장마시작일 평년 값은 6월 24일~25일, 종료일은 7월 24일~25일 무렵으로 약 한 달 간 이어지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6월 17일에 시작된 장마가 8월 4일에 종료되면서 49일간 지속되면서 1973년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로 기록되었다. 하지

만 오랫동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모두 다 장마는 아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태풍이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기압골의 영향 등으로 장마시기 전후로도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뿌리면서 인명과 재산피해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 장마전선이 형성됐지만 비는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로 지나기도 한다.

이처럼 여름철 하면 대표되어 오던 장마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사실! 현재 인간의 기술력이나 제도 등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제도 안내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지급일** 매달 25일(첫 지급일 : 7. 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신청 안내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http://basicpension.mw.go.kr)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및 모집계획

-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4. 6. 11 ~ 2014. 6. 30한
    - 접수기관 : 영농정책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2.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 증명서 등
- ※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033-670-2473)로 문의바람.